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이왕이면 확~"변신 성공"

김소연·김유미 청순 이미지 깨고
정보석·황정음 방정맞고 부산하게
최민수 부드럽게, 서우 엉뚱함 탈피

최근 TV에서 배우들의 변신 성공 사례가 이어지며 시청자와 관객의 갈채를 받고 있다. 특히, 저마다 오랫동안 고수해온 이미지를 과감히 깬 사례들이라 더욱 반갑다.

◇머리 자르고 청순 이미지 탈피

"짧은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김소연과 김유미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둘은 각기 KBS '아이리스'와 MBC '살맛납니다'를 통해 처음으로 커트 머리를 선보인 데 이어, 10년간 간직해온 청순한 이미지를 과감히 깼다.

김소연은 '아이리스'에서 북한 호위총국 특수요원을 맡아 여전사로 거듭났다.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는 이 드라마를 위해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으며 액션 배우로 거듭났고, '아이리스'의 최대 수혜자라는 반응도 끌어냈다. 그는 "평생 긴 머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르고 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진작 안 잘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며 "보이시한 여전사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유미 역시 '살맛납니다'를 통해 데뷔 이래 탈피하지 못했던 청순가련형 캐릭터에서 벗어나 호평을 얻고 있다. 그는 "그동안 아무도 내 이미지를 깨 주려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며 "몸에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 살맛 난다"고 말했다.

정보석

◇선남선녀, 코미디와 익살에 도전하다

정보석과 황정음은 MBC '지붕뚫고 하이킥'을 통해 재조명 받고 있다. 주로 멜로 드라마의 '훈남' 주인공으로 어필해온 정보석은 이번 시트콤에서 방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고, 늘 장인에게 구박을 받는 다소 모자란 캐릭터로 나와 큰 웃음을 준다.

또 인형 같은 얼굴의 황정음은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업한 이래 줄곧 부잣집 도도한 아가씨 캐릭터를 맡아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술 먹으면 실신해버리는 다소 방정맞고 부산한 캐릭터로 180도 변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웃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서우는 지난해 영화 '파주'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MBC '김치 치즈 스마일'과 '탐나는도다', 영화 '미쓰 홍당무'를 통해 외계에서 온 듯한 엉뚱한 이미지로 어필했던 그는 '파주'에서 시치미를 뚝 뗀 채 전혀 다른 인물이 됐다. 형부와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깊이가 느껴지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KBS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부스스한 파마머리에 눈치라고는 전혀 없고, 매사 막무가내인 철부지 조연출 역할로 연기했던 최다니엘은 MBC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쓴 공부벌레 의사로 출연 중인 그는 말수 적은 잘생긴 엘리트의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데뷔 이래 영화계에서 코믹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김수로는 생애 첫 드라마인 KBS '공부의 신'에서 카리스마와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 역을 맡았다. 그가 이끄는 '공부의 신'은 지난 4일 첫회에 이어 5일에도 잇따라 수목극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아버지로, 악역으로도 변신 성공

이소연은 지난달 말 막을 내린 SBS '천사의 유혹'에서 생애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 동료 배우들로부터도 '무섭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그는 "강한 캐릭터를 너무나 해보고 싶었다"며 "괜히 어정쩡하게 연기를 하면 작품이나 캐릭터 모두 살지 않을 것 같아 세게 나갔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최민수는 SBS 연말 특집극 '아버지의 집'에서 절절한 부성애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터프한 마초 이미지를 유지해온 그가 이 드라마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지만, 아들에 대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를 연기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SBS 김영섭 드라마 CP는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배우에게 변신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연기력이 뒷받침되고 확실하게 기존 이미지를 깨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변신은 대부분 성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신을 해도 애매하게 하면 실패를 하게된다"며 "긴 연기 인생을 생각할 때 배우들은 그때그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소연

'웨딩드레스' 아역 연기자 김향기

"촬영장에 가는 게 즐거워요. 연기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처럼 말하는 김향기(10)는 촉망받는 아역 연기자다. 2006년 유승호와 함께 연기한 '마음이'에서만 해도 향기는 수많은 '될성부른 떡잎' 중 하나였다.

그러나 송윤아와 호흡을 맞춘 '웨딩드레스'에서 향기의 존재감은 그때와 다르다.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극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아역 연기자로는 드문 경우다.

아이답지 않은 차가운 표정과 내내 참다가 한방 터뜨리는 울음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웨딩드레스'를 연출한 권형진 감독은 "다코타 패닝과도 바꾸지 않겠다"며 향기를 격찬한 바 있다.

> "연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신구 할아버지같은 배우 되고싶어요"

'웨딩드레스'에서 연기가 좋았다고 칭찬하자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꾸벅 숙인다. "그냥 소라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연기할 때는 소라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3살 때 CF로 데뷔한 향기는 지금까지 드라마 4편, 영화 6편에 출연했다.

향기는 '웨딩드레스'에서 불치병에 걸린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딸 소라 역을 맡았다. 결벽증이 있고, 말이 없지만, 속 깊은 초등학생 역할이다.

"윤아 언니는 연기할 때 정말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를 정말 끔찍이 잘 대해주셨어요. 연기도 잘 맞춰주시고요. 윤아 언니에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촬영장을 벗어나면 향기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영어와 산수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바이올린도 배운다. 훌라후프 돌리기와 달리기는 향기의 유일한 취미다. 눈사람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짬 내서 친구들과 노는 걸 즐긴다.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연기자고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힘들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전 연기가 너무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푸드스타일리스트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윤아 언니랑 (김)선아 언니 같은 예쁜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 신구 할아버지처럼 오래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해요."

/연합뉴스

'파스타' OST 공개

MBC 월화드라마 '파스타'의 OST 파트1이 6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OST 제작사인 풍년아트콘텐츠에 따르면 파트1에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부른 '듣다…그대를'과 그룹 엠투엠의 '갑니다', 에브리싱글데이의 '럭키 데이' 등 총 3곡이 수록됐다.

풍년아트콘텐츠 관계자는 "OST는 총 3편으로 나눠 발매되며 판매 수익금의 10%는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된다"며 "오프라인 OST는 다음 달 15일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